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 -----

(출 19:1-8)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말씀 끝---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 전부를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오늘 공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범위를 좁혀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을 중심해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2월 15일 , 다시 말해 1달정도가 돼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좀 더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입니다.

애굽에서 나온지 2달정도가 되는 기간 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390기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건너고 홍해 줄기를 따라서 인도하신

까닭은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징계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아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양방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양자, 양방이 법을 준수할 때 법의 효력이 있는 것 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 즉 율법을 통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말하는 내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준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합의되는 방법을 보면 이 법은 쌍방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법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 하나님은 먼저 제의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말씀 ---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 끝 ----

모세를 통해 주신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받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 율법을 안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관계가 형성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호 조약은 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것 입니다. ‘너희가 내말을 잘 들으면 복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을 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은

7절입니다.

말씀 --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

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말씀 끝 --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말씀 끝--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답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주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준수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처벌도 역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수여해주셨는데,

강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상호협약 하에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수여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몇가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확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그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법 조문을 사용하고, 그 조약과 그 규정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계약직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 계약을 제시하고 서로 싸인한 다음에 그 계약대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혼인을, 결혼을 했어요, (어제도 한쌍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혼인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마나인 결혼일 수도 있을거예요, 그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 가정이 나중에 결국은 서로 자연스럽게, 쉽게 헤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법적인 그 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속력이 약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뒤돌아설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하고 나면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했을 때에는 그 관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관계가 확실하게 된 것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떤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다른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도 갖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상응하는 특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국가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국가에서는 법적인, 국민에 대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국가에 살기는 하는데, 그 국가에서 어떤 법적인 신분을 갖지 못하면요,

그사람은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가간의 그 분쟁이 있을 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국가가 그 엄청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예요.

만약 미국시민이 어떤 다른 나라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어떤 그 피해를 받게 된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에게 만약 미국에 살고 있기는 하는데, 법적인 신분의 아무 지위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신경도 안쓰는 거예요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내려 왔어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수백만명이 모였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나라이지만은, 원 제대로 틀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해방을 맞고 난 이후에 , 그때가 1945년8월15일 이잖아요?

그 이후에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약 3년 후에, 제헌절 아시죠, 1948년, 1948년 7월 17일날이 제헌절이 잖아요.

이제 그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말미암아 국가의 기본 틀을 갖추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이 율법이 갖춰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민 국가로서의 국가적인 기본 틀을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민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법의 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준수 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법을 어겼을때는,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체결되었을 때는, 체결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법이 이미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법에는 구속력이 있고 ,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대하여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법을 준수해야지 축복을 받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 1.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 2.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칠리니
- 3.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 4.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 5.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 6.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15.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 했을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명확하게 말씀 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 했을 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을 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시고, 5절입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준수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를 분명히 명료화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그 법을 준수했을 때 주는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 주는 저주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된 민족으로써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만 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구요.

신약시대에서의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땅에 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 십계명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내용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활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활의 근간이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성막, 제사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을 지켜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완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은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실은 십계명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율법을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구약에서의 내용이나 신약에서의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하신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37-40)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압축해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1-2)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특정한 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쪽 내용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좇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13-17)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13-17)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때도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 무슨 법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입니다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이 최고의 법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고로 잘 사는,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네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을 실천 해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 율법의 법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고 최고의 법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 라는 그 법을말입니다

이제 그 율법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 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을 준수해야될 의무가 있는거죠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하나님 율법 때문에 두려 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내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진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계속 축복을 주실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
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더욱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을 우리
가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범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역시 또 범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점점 더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하는 그런 경우도 생
기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쉽게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가볍
게.

그래선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것을 큰 자기의 어떤 문제로 생각 해야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그 하나님의 법에 준한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무시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할 때는요 이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사로써의 지켜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직분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 그런 것들도 법입니다. 법,

그 법을 준수했을 때 준수한 자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있는겁니다.

그걸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축복대신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고, 징계가운데서 살아갈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에 관해서 몇 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교제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법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돌이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주시는 그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